

# 비주류 강력 반발...탈당·분당 카드 만지작

문-안 치킨게임에 자중지란 휩싸인 새정치

## 호남의원들 주말 결행설도 나온다 안철수 탈당·신당 결합 뎀 ‘핵폭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 비주류 진영과의 정면 승부에 나섰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강력 반발하며 탈당 및 분당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의 백책간두에 선 상황이다.

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사실상 비주류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의 주도로 당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비주류 진영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의 공천 요구로 규정했던 지난달 18일 광주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비주류의 공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미공개 성명, 9월 재신임투표 제안 등에서 드러난 비주류 진영에 대한 강한 불신이 이번에도 가감 없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문 대표는 혁신 전대를 수용하지 않는 명분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상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혁신의 기치로 당내 내홍 구도를 ‘혁신 대 반혁신 구도’로 돌파한다면 활로가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미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가 내홍을 돌파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탈당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당을 총선까지 이끌어 나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선전포고에 당내 비주류 진영은 탈당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표가 이날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을 그냥

안 넘기겠다”며 “당 기강과 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점도 그동안 문 대표와 각을 세웠던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도당위원장직 직책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번 주말을 계기로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안 전 대표의 탈당과 당내 투쟁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그동안 혁신 전당대회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입장을 밝힌데다 당내 투쟁의 여건도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탈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병호 의원은 “만약 당내에서 혁신과 통합의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흐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신당 추진 세력인 천정배 의원 및 박주선 의원 등이 안 전 대표의 합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주류 인사들과 함께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당장 교섭단체 이상의 신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신당 세력과의 통합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야권 재편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분열보다는 통합을 요구하는 야권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관계자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야권 재편이 불가

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주선 ‘광폭 행보’

정동영 이어 안철수에 러브콜...다음주 천정배 회동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에 이어 천정배 의원과도 조만간 회동에 나서는데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만나 새정치연합의 내분 사태와 야권 재편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당 참여 제안을 받은 안 전 대표는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이 “문 대표가 정권 창출은 안중에 없고 당권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안 전 공동대표는 “(문 대표가) 대선 승리보다는 (이가지도 못할)대통령 후보 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3일에도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 야권 재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 전 의원은 “지역 민심은 이미 새정치연합을 떠나 신당 창당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민생, 민주, 민족 등 ‘3민 파탄’이 자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함께 “신당이 통합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다음 주 내에 천정배 의원을 만나 신당세력 간의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양 측에서 물밑으로 회동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내에는 천 의원을 만나 신당 세력 간의 통합과 야권 재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총선 후보 평균 선거비 1억7800만원

순천·곡성 2억4100만원 ‘최대’...정당별 48억1700만원까지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4·13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평균 1억 78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경우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선거구 재조정시 재산정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재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재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 감소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읍으로 1억4400만원이라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북구이이 1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이이 1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전남의 경우 여수시갑이 1억5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여야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공감대

선거구 확정위 재가동...5일 ‘2+2회동’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가 선거구 협상을 재개하고 나섰다.

총선이 불과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3일까지 아직 ‘게임의 룰’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역시 오는 15일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인

구 비율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그 시한을 오는 3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선거구 확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야는 선거구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

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회동한 결과, 선거구확정 문제를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동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함께했다.

여야는 또 오는 5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 정개특위 위원까지 포함해 회동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는 그간 논의 과정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7석 정도 늘리는 데 의견집결을 이룬 상태다.

그간 ‘비례 의석 축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새정치연합이 비례 의석 축소에 동의한 만큼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보안책을 좀 더 고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이 요구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이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도입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이형석 전 광주경제부시장 ‘광주역 해법’ 토론회

이형석 전 광주경제부시장은 3일 광주역 무등산출에서 ‘위기의 광주역, 해법을 논하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이 전 부시장을 포함한 광주대 노경수 교수와 광주전남연구원 정하옥 박사,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 교수는 “광주역 인근 개발 또는 KTX역과 연계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장이 자주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광주전남기자협회 구길용 회장



은 “광주역 문제는 광주 정치권의 비건 강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전 부시장은 “광주역 주변의 슬럼화 현상은 가보지 않은 분은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시민과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